

기획보고서 06-001

---

## 2005년 해외지역이슈 돌아보기

---

**kotra** 해외조사팀

## 요 약

본 보고서는 71개 KOTRA 무역관이 해외 사업을 수행하면서 각 지역의 무역·투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 2005년도 무역·투자 경제현안을, 6개 지역(북미, 구주, 아시아·대양주,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러시아·CIS)으로 나누어 10대 이슈를 선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내었다.

2005년 해외시장환경의 두드러진 특징은 북미 등의 일부 선진시장에서 우리수출이 감소한 반면,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중동지역, EU 신규 가입 중동구 국가들,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 Post BRICs로 시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아프리카지역 등에서 우리의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 IT, 전기·전자, 핸드폰 등이 약진하여 우리의 수출 및 투자가 전반적으로 호기를 맞았다는 점이다. 한편 무역 자유화를 위한 WTO 다자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일부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전 지역에 걸쳐 다대·다양하게 추진된 것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었다.

2006년에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은 우리 수출의 주요 시장 및 중점 품목으로의 편중에서 오는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여 수출시장 및 품목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주력상품의 수출지를 좀더 다양화하고 각 개별시장의 상이한 시장 구조, 소비자 기호, 규제, 문화·사회적 여건 및 리스크 요인 등의 시장특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시장 점유를 확대하는 한편, 품질 경쟁력과 수요는 있으나 해외진출이 미비했던 유망 수출 분야를 탐색하고 신규시장 및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이원화된 진출 전략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 목 차

## I. 머리말/1

## II. 지역 10대 이슈 /3

2.1 북미 /3

2.2 구주 /8

2.3 아시아·대양주 /16

2.4 중남미 /24

2.5 중동·아프리카 /32

2.6 러시아·CIS /39

## III. 시사점 /44

3.1 공동현안 /44

3.2 지역현안 /48

참고. 약어 색인 /53

## I. 머리말

해외 수출·투자여건은 환율의 변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새로운 법규의 도입, 기존 법규의 강화, 국가간의 다자 혹은 양자 통상무역협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동시에 시장의 성장 규모, 소비자의 기호 다양화, 시장 자체 내의 구조조정 등으로 해외 비즈니스 환경이 점차 복잡화되고 있으며 악화와 개선이 병행한다.

2005년에도 고유가, 원자재 수급 불균형, 허리케인, 지진 등의 자연재해 피해, 지역 블록화 현상 가속화, 중국을 주도로 한 BRICs 국가의 지속적인 세계 시장잠식 등 많은 변수의 작용으로 우리의 수출 및 해외투자가 영향을 받았다.

본 보고서는 2005년도 우리의 해외 수출 및 투자시장의 주요 경제이슈를 정리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이미 2006년에 접어들었으나 다수의 무역·투자 이슈는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지속될 것이며 해외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2005년 주요 경제현안의 점검은 2006년 우리기업의 수출 및 해외투자를 준비하는 데 좋은 밑바탕을 제공하리라 본다.

본 보고서는 71개 KOTRA 무역관이 해외 비즈니스 사업을 시행하면서 중요했다고 평가하는 국가별 무역·투자 관련 경제이슈를 6개 지역(북미, 구주, 아시아·대양주,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러시아·CIS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중 각 지역의 국가들에 공통되었던 사안이나 그 지역의 무역 및 투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요소들을 묶어 10대 이슈를 정리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 우리의 해외 비즈니스 활동에 관련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참가 무역관>**

지역	무역관	국가수
북미	뉴욕(미국), 토론토(캐나다)	2
구주	런던(영국), 마드리드(스페인), 밀라노(이탈리아), 바르샤바(폴란드), 베오그라드(세르비아), 부다페스트(헝가리), 부쿠레슈티(루마니아), 브뤼셀(벨기에), 빈(오스트리아), 스톡홀름(스웨덴), 아테네(그리스), 암스테르담(네덜란드), 오슬로(노르웨이), 이스탄불(터키), 자그레브(크로아티아), 취리히(스위스), 코펜하겐(덴마크), 파리(프랑스), 프라하(체코), 프랑크푸르트(독일), 헬싱키(핀란드)	21
아시아· 대양주	뉴델리(인도), 다카(방글라데시), 도쿄(일본), 마닐라(필리핀), 방콕(태국), 상하이(중국), 시드니(호주), 싱가포르(싱가포르), 양곤(미얀마), 오클랜드(뉴질랜드), 자카르타(인도네시아), 카라치(파키스탄), 콜롬보(스리랑카), 칼라룸푸르(말레이시아), 타이베이(대만), 프놈펜(캄보디아), 호치민 (베트남), 홍콩(홍콩)	18
중남미	과테말라(과테말라), 리마(페루), 멕시코시티(멕시코), 보고타(콜롬비아),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산토도밍고(도미니카공화국), 산티아고(칠레), 산호세(코스타리카), 상파울루(브라질), 카라카스(베네수엘라), 파나마(파나마)	11
중동· 아프리카	카사블랑카(모로코), 나이로비(케냐), 라고스(나이지리아),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무스카트(오만), 바그다드(이라크), 베이루트(레바논), 알제(알제리), 암만(요르단), 요하네스버그(남아공), 카이로(이집트), 쿠웨이트(쿠웨이트), 테헤란(이란), 텔아비브(이스라엘), 트리폴리(리비아)	15
러시아· CIS	노보시비르스크(러시아), 모스크바(러시아), 알마티(카자흐스탄), 키예프(우크라이나),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6

## II. 지역 10대 이슈

### 2.1 북미지역

#### □ 경제성장추세 지속

- 북미는 2005년 총체적으로 안정적 경제성장세를 구가
  - 미국: 금리인상 및 유가급등, 허리케인 피해 등에도 불구하고 매분기 3.0% 이상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 특히 최근의 경제성장은 소비자 및 기업지출의 확대에 의한 것으로 2006년에도 지속될 전망
  - 캐나다: 경제 호황이 최근 2년간 지속 증으로 경기활성화 및 내수소비 안정을 위한 연방정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 등이 한 몫을 담당

#### □ 쌍둥이 적자, 미 경제의 골칫거리로 주목

- 무역적자, 매년 2자리수 증가율을 기록
  - 2004년 무역적자는 6,510억 달러로 전년 대비하여 22.27%의 증가를 기록, 2005년 1~9월중 적자는 전년 동기대비 18.22% 증가한 5,549억 달러로 연말까지 7,000억 달러 초과 확실시
- 2005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역대 3위 규모로 전년 동기대비 22.7% 감소한 3,190억 달러로 집계

- 적자규모의 축소 원인은 연방정부의 세수(15%)가 지출(8%)의 증가폭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되나 고유가 지속, 허리케인 피해보상 실시 등으로 2006년 정부 지출이 증가할 경우 재정적자 폭이 확대될 전망

## □ 금리인상 기조 지속

- 북미지역은 경제안정, 인플레이션 억제 등의 취지로 연중 금리인상을 유지
  -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2004년 6월(당시 단기금리 1%)이후 12차례의 FOMC 정례회의를 통해 매번 0.25%씩의 단기금리 인상을 단행(11월 1일 회의 후 단기금리는 4%로 인상)
  -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2005년에만 총 3회에 걸쳐 금리를 인상(75bp) 하였으며 12월 금리는 3.25%임

## □ 다자 및 쌍무 협상 추진

- 2005년 북미 통상정책의 중요 현안 중 하나는 다자간 협상과 쌍무협상의 병행
  - 미국: WTO DDA 협상 등 다자간 협상을 통해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진행함과 동시에 CAFTA 등 개별교역 상대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
  - 캐나다: 2004년 이래로 우리나라와 FTA 체결 협상을 본격 추진, 우리는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무관세, 양국간 투자유치 활성화, 캐나다 정부조달 시장 진출

등에, 캐나다는 우리의 금융서비스 시장 진출, 대한 수출품  
목 다변화, 수출보조금 지원제도 등에 관심을 표명

#### □ 대중 수입급증에 따른 무역적자 증가

- 북미시장에서 중국상품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대중국 무역  
적자 증가추세
  - 미국: 대중 무역적자는 2002년 1,031억 달러, 2003년 1,241억  
달러(20.28% 증가), 2004년 1,620억 달러(30.52% 증가)로 매  
년 큰 폭의 증가를 보임, 금년 9월까지의 적자액도 1,463억  
달러로 연말까지 2천억 달러 육박
  - 캐나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특히 저가의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의류, 신발, 장난감 등  
이 동 시장을 잠식

#### □ 대중통상압력 강화

- 대중무역적자의 가중으로 시장잠식에 대한 우려감이 증대  
되면서 대중 통상압력을 강화
  - 미국: 중국정부가 7월21일 위안화의 2.1% 평가절상을 단행  
했으나 미국의 업계 및 의회는 대규모의 추가절상을 요구  
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에 불응 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일  
괄관세 등 의회차원의 제재법안을 마련 예정, 또한 광범위  
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근절을 중국정부에 강력히 요구

- 캐나다: 중국산 제품 중 총 13개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가 실시 중이며 업계의 요청에 따라 중국산 바비큐기기, 가구 등에 세이프 가드 발동을 검토 중

#### □ 우리나라의 북미수출 감소 추세 강화

-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 감소로 우리나라의 대북미 수출비중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대캐나다 수출가도도 적 신호 추세임
- 미국: 2002년까지의 대미 수출비중은 20%를 상회하였으나 2003년 17.66%, 2004년 16.88%로 해마다 감소하였고 2005년 1~10월까지의 대미 수출비중은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14.47% 수준으로 하락
- 캐나다: 2005년 9월까지의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5.5%가 감소한 2억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대캐나다 무역수지가 2002년 12월 이후 최초로 3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

#### □ 섬유수입쿼터제 폐지 및 미·중 포괄적 섬유협정 체결

- 2005년 1월 1일부로 전 세계 섬유수입 쿼터제도가 폐지된 이후 미국시장에서 세이프가드 발동
- 중국산 일부 섬유, 의류 품목의 대중 수입이 폭증함에 따라 바지, 셔츠 등 품목별로 세이프가드 적용
- 미국과 중국정부는 중국산 섬유 의류 제품의 미시장 잠식이

양국간의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교역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취지 하에 총 34개 품목군에 대한 '포괄적 섬유협정'을 체결, 쿼터량 부여에 합의

#### □ 중국의 미국기업 M&A 및 미국의 반발

- 중 Lenovo사의 IBM PC부문 인수로 접화된 중국의 미 기업 인수사례가 Haier사의 Maytag,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의 Unocal사 인수시도로 확대됨에 따라 미국의 대 중국자금 경계론이 급부상
  - CNOOC의 Unocal 인수시도는 의회와 정부의 정치적 압력과 미 언론 및 여론의 부정적 반응이 겹쳐 실패됨
  - 미국은 CNOOC의 인수시도가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하고 동 사는 전체지분의 70%가 중국정부의 소유로, 이는 M&A 활동에 저리의 대부금 및 정부 보조금 활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난

#### □ 미국의 해외 아웃소싱 및 해외투자 증가세

- 미국기업의 해외아웃소싱 및 생산기반 해외이전 등이 미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와 미국인들의 일자리 해외 유출로 미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찬반논쟁이 대립되는 가운데 해외 아웃소싱 및 해외투자가 증가추세
  - 2005년 미국의 해외투자액은 총 2,520억 달러를 기록하여 사상 최고치를 수립

## 2.2 구주지역

### □ 대 EU 수출 증가

#### ○ 우리나라의 대EU 멤버국가로의 수출이 호조를 유지

- 핀란드: 누계 기준으로 2005년 10월까지 우리나라의 대 핀란드 수출은 사상최대 규모인 16억 6천7백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21.6% 증가 하였으며, 상응하여 핀란드의 제28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 주요 수출품목은 핸드폰, 승용차, 가전제품 등이며, 이 중 약 70~80%는 핀란드를 경유하여 러시아 혹은 동구권으로 반입되고 있음
- 스위스: 2005년 1-8월까지 대 스위스 수출은 5억100만 스위스프랑(4억1700만달러)을 기록하며 동기 대비 26%의 높은 증가를 기록, 특히 자동차, 전자 및 IT제품에서 각각 37%, 26%의 높은 수입증가세 시현
- 헝가리: 대 헝가리 수출은 2005년 10월 전년 동기 대비 33.1%의 증가세를 보여 2000년부터 6년 연속 두자리수 증가세를 지속, 주요 증가 품목은 휴대폰, 컬러 TV 부품 등
- 네덜란드: 2005년 우리나라의 대 네덜란드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 주력품목은 승용차, 칼라 TV, 무선전화기, 건설 중장비,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타이어, 자동차 부품 등임

## □ 한국자동차 인기

- 전 유럽에 걸쳐 국산자동차가 선풍적 인기를 주도하면서 신차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유지
  - 네덜란드: 2005년도 네덜란드 신차 판매량이 2004년 대비 3%정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산 자동차는 2004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면서, 10월까지 9.3%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 특히 두산, 스포티지, 소렌토 등 한국산 레저용자동차(SUV)는 네덜란드 내에서 “Best SUV”로 선정되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음
  - 덴마크: 올해 상반기 중 국산차의 판매 증가율은 기아 97.2%, 현대 37%, 대우 43%로, 이와 같은 괄목한 성장세에 힘입어 국산차의 시장 점유율은 2002년도 4.0%, 2003년도 7.3%, 2004년도 9.5%에 이어 2005년 상반기에는 12%로 확대
  - 그리스: 2005년 10월까지 자동차 판매실적이 -5.9%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및 기아, 쌍용차는 각각 22,757대와 8,116대, 238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7.1%, 73.5% 및 8.7% 증가, 특히 현대차는 도요타를 제치고 2000년 이후 점유율 1위를 탈환하였고, 기아차도 전년 점유율 20위에서 14위로 도약하였음
  - 오스트리아: 2005년 10월 말까지 오스트리아의 신규 자동차 판매대수는 총 267,974대로 전년 동기(268,621대)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국산 자동차는 디젤 승용차의 본격적 출시,

경쟁력 있는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 유럽인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의 변화, 향상된 애프터서비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 등의 덕택으로 약진 추세를 지속하여 전년 동기 대비 현대차 20.1%, 기아차 40.5%의 판매대수 증가를 시현

- 스페인: 자동차 내수판매는 10월까지 전년대비 0.9% 증가 하였으나 국산 자동차 판매대수(대우는 제외)는 판매법인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SUV 차량의 선풍적인 인기에 기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면서 대 스페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3%의 증가를 보임
- 독일: 차량 신규 등록수에서 한국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2004년 2.9%에서 3.6%(11월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30%가까운 신장률을 시현, 특히 기아자동차의 경우 전년대비 51.4%의 신장률을 기록하여 전체 자동차업체 중 가장 높은 신장률을 달성

#### □ EU의 대 중국 섬유 쿼터제 재도입

- 2005년 1월1일 세계 섬유쿼터제 폐지 이후 급증하는 중국산 섬유에 대하여 6월부터 쿼터제 재도입 합의
- 7월13일부터 중국산 스웨터, 바지, 블라우스, 티셔츠 등이 쿼터 초과되어 유럽항구에 묶이게 되면서 사회, 경제적 문제로 대두
- 이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자국내 의류 생산이 많은 남부 유럽 국가들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독일 등 생산기지 이전을 통한 해외 아웃소싱이 많은 북부 유럽들 간에 갈등을 야기

- EU와 중국은 섬유협상(9월4일-9월5일)을 통해 올해 미 소진  
부문의 쿼터 전용사용 및 내년도 쿼터의 선사용 등의 형태로  
합의함으로써 9월14일부터 유럽항구에 묶여있던 중국산 섬유  
의 EU내 수입통관이 가능해짐

#### □ 교토기후협약 발효 이후 재생에너지 이용 제품 및 그 밖의 친 환경 상품시장 성장

- 2005년2월16일 교토 기후협약 발효 이후 각국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 및 관련 산업 보조금 지급으로 친환경 재생에너  
지 산업 및 탄소저감 기술 탑재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대
  - 영국: 자국내 배기가스 규제량 내부목표를 20%로 설정하고  
재생 에너지 활용을 장려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원을 대체하는 업계에 대해 탄소세를 감면할 방침
  - 네덜란드: 친환경자동차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폭하고 있는 증으로 카본필터  
(Carbon Filter)를 장착한 디젤차량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에게 에너지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
  - 스웨덴: 11월까지 일반 신규 차량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4.4% 성장하였으나 친환경 차량 판매는 82% 증가
  - 벨기에: 11월10일 첫 CO<sub>2</sub> 배출권 온라인 거래 시장이 개통  
됨으로써 온라인 데이터를 통해 EU 전 회원국 기업들(1만  
2000개 공장)사이에 배출권 매매가 가능해짐

- 스페인: 지난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CO<sub>2</sub> 배출권 주식거래가 등장, 957개의 CO<sub>2</sub> 배출권 매매대상기업이 있으며, CO<sub>2</sub> 배출권 매매 브로커는 SendeCO<sub>2</sub> 를 비롯해, CO<sub>2</sub> Spain, Factor CO, CO<sub>2</sub> Solution 등 7개사가 있음
- 오스트리아: 환경산업은 오스트리아 산업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현재 400개 이상의 관련 기업들이 그 기술 및 제품을 세계에 수출 중이며, 특히 최근 들어 정부가 환경친화적인 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목탄 발전 설비(Biomess)를 착공

#### □ 환경 및 위생규제 강화 움직임 지속

- EU의 환경 및 위생관련 규제가 강화 또는 지속되는 상황으로 EU로 수출하는 기업에 추가적 거래비용을 초래하여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REACH(화학제품관리법): EU에서 1톤 이상 생산 또는 수입되는 3만개의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평가, 허가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려는 REACH법안이 1차 독회 통과 후 수정안이 제출되어 현재 EU의회 최종 독회 상정을 앞두고 있음
- 체코: EU 규정에 따라 8월 13일부터 모든 가정용 전자제품에 대하여 생산 및 수입업체에서 폐가전제품을 의무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8월 13일 이전 판매된 가전제품의 회수처리 부담금으로 구입 제품 당 104.50크라운과 구입제품의 회수처리 비용으로 제품가격의 1%를 추가 부담

- 프랑스: 의약품, 약품, 화학품, 기계, 전기, 전자, 식품, 자연산, BIO 등에 관련한 제품의 증명을 위해서는 AFNOR라는 인증기관을 통한 CE마크 획득, LNE 라는 국가 검필 기관이 요청 하는 규격 등을 검필

## □ 한-EFTA<sup>1)</sup>간 FTA 체결

- 2005년 7월 중국 다롄에서 열린 WTO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한-EFTA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완료되어 2006년 7월1일부로 발효될 예정
- EFTA측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발효 즉시 100%관세를 철폐하게 되며, 우리나라는 EFTA원산지인 상품의 관세를 최장 7년간에 걸쳐 철폐

## □ 유럽 헌법 부결

-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서유럽 국가의 EU 헌법 부결로 유럽 연합의 통합 심화과정이 심각한 타격을 맞음
  - 동구권 및 향후 터키의 EU가입 등으로 파생될 이민자 유입, 인플레이션, 복지혜택의 감소 등에 대한 EU 주민들의 우려로 EU의 경제적·정치적 결속을 다지는 EU 헌법 부결

## □ 전기, 전자, IT시장 성장 및 수입증가

- EU시장의 전기, 전자, IT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시장성장이 주목할 만함

1) 현재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

- 노르웨이: IT 관련 품목의 총 수입액은 360억 Kr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으며, 이로 인하여 노르웨이 전체 수출비중에서 IT 관련 아이템은 6%를 점유
- 스웨덴: 지난 3/4분기 중 스웨덴 시장 내 3G 휴대폰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였으나 최근 소니에릭슨사의 급속한 부상으로 국내 업체인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시장 점유가 다소 부진

#### □ 터키의 EU 가입 협상 개시

- 2005년 10월 3일부로 터키의 EU가입 협상이 개시되면서 터키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가입 협상 과정에서 EU규범이 적용되어 터키의 EU화가 촉진되면서 농업구조 및 금융산업의 개혁,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비관세장벽의 철폐 등을 통하여 무역·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 경제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가격 왜곡 감소 및 투자 환경 개선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터키와의 경제협력을 확대시켜야 할 필요 증대

#### □ 남·동부 유럽,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

- 남·동부 유럽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및 민영화 작업 등의 지속적 외투 유치 노력에 따라 외국인 투자액이 급증

- 체코: 국영통신회사 및 석유화학회사를 민영화하고 외국인의 비자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제반 여건 개선을 통하여 2005년 8월까지의 FDI 유치액이 약 8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달성
- 폴란드: 2004년 5월 EU 가입 후 서유럽 시장을 겨냥한 시장기지로서의 중요성이 증대하여 금년 FDI 유치액이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터키: 외국인 투자 유치 차원에서 2006년부터 법인세(30%→20%) 인하 계획을 발표하였고 외국인 투자에 부과되던 세금도 인하할 예정으로 동 감세안은 외국인 투자 증대에 호재로 작용될 전망

## 2.3 아시아·대양주

### □ FTA 체결

- DDA와 같은 다자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자간 협상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전 아시아 지역을 걸쳐 FTA 체결 및 협상이 증가 추세
- 중국-ASEAN FTA: 2005년 7월20일부터 2010년에 걸쳐 대폭적인 관세인하 조치가 단행되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관세인하 스케줄이 적용
- 서남아 자유무역협정(SAFTA)<sup>2)</sup>: 12월 2일, 2006년 7월의 서남아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합의, 최빈국, 비최빈국 국별 관세인하 및 예외품목 인정, 원산지규정 및 최빈개도국 보상
- APTA: UN의 ESCAP에서 개발도상회원국간의 무역확대를 위해 지난 2001년 방콕협정에 의한 관세인하 이후 2번째 관세인하조치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등 총 6개국이 참가
- 대만-과테말라 FTA: 과테말라측은 3,509개(전체 항목수의 66% 및 대만의 대 과테말라 무역가치의 60%)의 공산품항목을 개방하였으며, 한편 대만은 투자와 서비스업분야에 있어서 과테말라의 투자 기제를 이용하여 「중미자유무역협정」 및 「미주자유무역협정」의 실효 전에 미국시장 진출을 강화 시도

---

2)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7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뉴질랜드-태국 자유무역협정(CEP): 2005년 4월19일 체결되었고 7월1일부터 정식 발효 되었으며 뉴질랜드는 자국의 농축산물의, 태국은 주요 공산품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
- 일본-말레이시아 FTA: 기본골격에 대해서만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공식 발효 시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일본의 현지 조립차(CKD)용 부품 관세의 즉시 철폐를 비롯, 2015년까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단계적 관세 철폐, 10년 이내 모든 일본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예상
- 스리랑카-파키스탄의 FTA: 308개 품목에 대한 관세면제(스리랑카산 206개 품목, 파키스탄산 102개 품목)를 2005년 6월12일부로 발효 중이며, 관세면제뿐만 아니라 양국간 비관세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양국간 자유무역지대를 지양
- 스리랑카-인도의 FTA를 넘어선 포괄경제체휴협정: 2000년 발효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보다 심화하고 서비스, 투자분야를 새로이 포함시키고자 포괄적인 경제체휴협정을 추진 중
-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칠레 4개국 FTA: 2006년 1월부터 발효되며 90%이상의 상품이 이들 국가간 무관세로 교역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함

## □ 수입 및 각종 규제

-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무역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규제조치를 실시

-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은 “중화민국 수입식품 및 식물상품검역규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러시아 등지의 산자나무, 사과류, 자두, 배 및 대추에 대해 2006년 2월 1일부로 수입 금지 예정을 공고
- 뉴질랜드: 2005년 1월 14일 국산 오일필터가 반덤핑 확정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국산 제품의 대뉴 수입규제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에 이어 3개로 증가
- 파키스탄: 관세위원회는 11월에 우리나라 등 4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폴리에스테르사 제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이로 인하여 우리기업은 업체별로 8.92%에서 29.07%에 이르는 관세율을 부과 받게 됨
- 호주: 11월까지 우리제품 10품목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에 이어 반덤핑규제 1위 대상국이나, 중국제품의 수입급증이 이슈화 되면서 국산에 대한 규제 기조는 다소 완화될 듯

## □ 에너지 개발 사업 성장

- 천연자원 및 차세대 에너지 개발 사업이 관련환경 개선 등의 요인에 의해 증가 추세
- 말레이시아: 말련 정부는 내년에 1억 2천만 링깃을 투자하여 세 개의 합작 바이오디젤 공장을 설립하고, 디젤을 동력으로 사용하던 대중교통 수단, 군용 트럭, 플랜테이션 산업 분야에 바이오 디젤 연료를 시범적으로 사용하여 2007년 1월부터 일반부문으로 사용을 확대할 계획

- 미얀마: 대우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70%의 지분을 갖고 참여중인 미얀마 북서부 해상 천연가스전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009년부터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우리의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인도네시아: 석유·가스기업들의 설비투자를 통한 생산량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가스 채굴장비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

## □ WTO

- WTO 가입과 더불어 시장개방 가속화 및 비회원국의 가입 시도 가시화
  - 중국: 유통·서비스업 시장을 대폭 개방, 유통, 식당, 미용, 체육시설 등 상당수 서비스업종에서 외국인 단독투자가 가능해졌고 2008년에는 모든 서비스 업종이 개방될 예정
  - 베트남: 2005년 최대 이슈였던 WTO 연내 가입은 미국과의 타결실패에 의해 결국 실현되지 못함
  - 캄보디아: 1월부터 WTO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회원국만이 누릴 수 있는 섬유쿼터제 폐지에 따른 섬유수출 자유화 혜택과 더불어 섬유산업의 새로운 도약 계기를 마련

## □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활발

-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막대한 SOC 투자 프로젝트가 정부주도로 발주
  - 방글라데시: 만성적인 전력공급 부족을 만회하기 위하여 이 동식 발전소 8개를 건설할 계획이나 자체 기술의 부재로 외국 기술과 자본을 유치 시도
  - 인도네시아: 220억 달러에 상응하는 91개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표한 가운데 국내 조달 비중은 20%에도 미달할 것으로 보이며 절대적으로 외국의 투자를 필요로 함
  - 호주: 사상최대의 자원 및 원자재 수출분을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로, 항만, 자원개발 등에 400억 호주 달러 규모의 SOC 투자를 추진 중

## □ 엔화 급락

- 원-엔화환율이 연초 100엔당 1,008원 수준에서 12월초 현재 880원대까지 급락, 환차손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현상 초래
- 전기전자, 기계화학, 플라스틱, 철강금속 등의 업종이 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저가품 공세 등으로 대일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특히 체계적인 환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은 대일 수출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큰 상황

## □ 한류 확산과 수출 증대

- 겨울연가, 대장금 및 여타 드라마들의 인기에 힘입은 한류 열풍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 개선 및 핸드폰, 가전제품, 승용차 수출 등에 기여
  - 일본: 문화상품 분야는 현재의 한류를 견인하는 분야로서 영화, TV드라마, 음악콘텐츠, 나아가서는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2005년 이후로는 한류열풍이 일반상품 분야로 확산 중
  - 말레이시아: 중국계로부터 확산된 한류로 한국제품에 대한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 형성
  - 태국: '대장금', '가을동화', '불새' 등의 인기로 확산된 한류는 국산 음·식료 및 화장품 분야의 인기를 증가시킴
- 그러나 김치분쟁 등의 영향으로 중국 등지에서 반(反)한류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음

## □ 휴대폰, IT 시장 급성장

- 동남아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비자의 구매력 상승에 기인하여 휴대폰, IT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음
  - 베트남: 휴대폰 시장은 2004년에 116% 증가한 162만대의 기록적인 판매신장을 이룩, 2005년에는 270~300만대 판매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히 낮은 1인당 휴대폰 보급률, 정부의 휴대폰 관세 인하(5%), 국내 소비자의 구매력 상승, 이동통신사들의 건전한 경쟁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베트남: 온라인 게임시장은 컴퓨터 판매가 연간 30~35%씩 증가하고 젊은 층의 게임에 대한 선호가 급증함에 따라 연평균 300~400% 급성장 중
- 싱가포르: 2월부터 싱가포르에서 3G 통신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막하여 StarHub사는 모바일 인터넷 플랫폼인 i-mode 서비스를, SingTel사는 모바일 TV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 수요를 증폭시킴
- 태국: 2005년 초고속 인터넷 사용인구가 100만 명을 육박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게임 등의 시장규모가 급속히 팽창하는 가운데 라크나로크 등 국산 온라인 게임이 태국시장을 석권 중

#### □ 현실로 다가오는 '차이나 리스크'

- 2005년은 중국시장 코드가 '시장 개척'에서 '리스크 관리'로 전환된 한 해로 평가
  - 차이나 리스크는 에너지 부족, 임금 급상승, 지재권 침해, 핵심기술 유출, 조류 바이러스 등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 차원의 효과적인 통제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는 중국 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대기업들은 리스크 관리체제로 적극 전환 중

□ 일, 지적재산권 보호 및 감시활동을 강화

○ 일본정부는 지적재산권전략본부를 신설하고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망

- 2005년 1~9월 기준 모조품 등 지재권 침해물품 수입금지 건수는 중국이 4,769건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이어서 한국이 3,677건(전체의 39.4%)으로 2위

## 2.4 중남미

### □ FTA 체결 활성화

- 중남미 시장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남미 국가간의 혹은 제3국과의 FTA 체결이 급증하고 있음
  - 중미 6개국-미국의 FTA(CAFTA): 중미 DR-CAFTA 6개국<sup>3)</sup>과 미국간 체결한 FTA가 미국 의회 인준(6월30일 상원, 7월28일 하원)을 거쳐, 도미니카 의회에서도 인준(8월26일 상원, 9월6일 하원)됨으로써 북미 2억9천만명과 중미·도미니카 인구 2천9백만명이 합쳐진 총 3억1천만명의 시장 형성
  - 일-멕 FTA: 멕시코와 일본은 4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양국의 교역 증가 효과가 다대
  - 아르헨-멕시코 경제보완협정: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는 경제보완협정의 맥락에서 2,000여개 품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상호 시장 개방을 협상 중
  - 칠레의 FTA: 2005년 칠레는 P-4 협정(칠레-싱가폴-뉴질랜드-브루네이간 FTA), 중국, 인도와의 FTA 체결로 42개국(인구 기준 48억으로 세계 인구의 74%)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 코스타리카-CARICOM의 FTA: 2005년11월15일 코스타리카와 12개 카리브 도서국으로 구성된 CARICOM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

3)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6개국

- 콜롬비아-미국의 FTA: 페루, 에쿠아도르와 더불어 미국과의 FTA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으로, 특허권과 농업 분야 협상이 난항
- 파-싱가포르의 FTA: 파나마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파나마 운하와 콜론자유무역지대를 대상으로 싱가포르의 물류·해운 분야 기업들이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파나마 시장에 대한 관심 상승 중
- 페루-미의 FTA: 12월 7일 합의되어 양국 국회비준만 남은 상황으로 2006년 중순경에는 발효 예정

#### □ 무역규제의 강화와 완화가 병행

- 중남미 국가들에서 무역규제의 강화와 완화가 병행 실시되면서 우리 수출의 기회와 걸림돌을 동시에 마련
  - 멕시코: 11월 수입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품목에 따라 사전수입허가제, 품목별 수입허가증 등 일부 무역조치를 폐지
  - 브라질: 브라질정부는 3월 3일 15개 철강제품에 대해 수입관세 영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기로 결정하였으며 잠정관세 적용기간은 금년 3월 7일부터 6개월간 적용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8월 22일 국산 폴리에스테르 직물 2개 품목(HS 코드 5407.6100, 5407.6900)의 덤핑 혐의를 확인하고 FOB 최저 수출가격을 지정하였으나, 11월 16일 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HS 코드 5503.20)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해제

- 아르헨티나: 지난 9월 28일 관보에서 '한국·브라질·대만산 PET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후 한국산에 대해 무혐의로 판정해 조사를 종결
- 아르헨티나: 연방세입청은 2005년 8월 11일 HS 8단위 기준 29개 품목에 대해 최저 수입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행정령(Nota) 18/2005'를 고시함으로써, 우리의 HDD, 키보드 등 컴퓨터 관련부품, 동축케이블 등의 수출에 영향 예상
- 페루: 페루는 중고자동차 수입비중이 전체의 70%를 초과할 정도로 중고자동차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최근 리마 시에서는 환경 및 안전등의 이유로 중고자동차 수입 규제를 가속화

#### □ 소비자 구매력 확대

- 화폐가치 상승, 임금인상 및 관광객 증가 등의 요인으로 소비자 구매력이 향상되고 있음
- 도미니카공화국: 2003년-2004년의 2년간 극심했던 환율불안이 2004년 말부터 급속히 안정을 되찾아 현지화인 페소(Peso)화의 가치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력이 2005년도에 38%로 회복되어 전반적인 시장 및 소비자 구매력이 확대
- 아르헨티나: 2004년 9.0%, 2005년 8.5%(예상)의 경제성장으로 수입 수요가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

## □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 중

- 정부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으로 외국인 투자가 장려되고 있으며 건설업붐 발생
  - 도미니카 공화국: 3억5천만 달러 규모의 산토도밍고 지하철 (Metro) 건설계획, 3억8천만 달러 규모의 인공섬 건설계획, Malecon 관광단지 건설계획, 대형 발전소 건설계획(풍력, 화력, 석탄)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추진 중으로 외국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 부여 및 관련법을 정비
  - 과테말라: 정부의 대형 메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1단계로 총 투자금액 7억불, 104킬로미터의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 건설과 중부 횡단 도로 건설이 착공되었고, 아마띠틀랑 호수 정화 프로젝트도 구체화 되었으며, 4천만불 규모의 국제 아우로라 공항 리모델링 작업도 2005년 8월부터 시작

## □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 증가

- FTA 체결, 품질개선, 이미지 제고 등의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이 증가 추세
  - 칠레: 2005년 10월말 기준 우리의 대칠레 수출 금액은 9억7백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65.2%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경유, 가전, 휴대폰의 경우 50%-100%의 대폭 신장
  - 코스타리카: 2005년 우리나라의 대 코스타리카 수출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1억 6,100만 달러로 기대

-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한 우리의 대파나마 수출 규모는 2005년 1~10월간 49.7% 증가했으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 TV, 타이어, 냉장고, 건설 중장비, 세탁기 등은 최소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유지

## □ 국산 자동차 인기

- 중남미 국가들의 무역수지 흑자, 경기 호전, 공급업체간의 가격경쟁, 우리 자동차의 이미지 개선, 인지도 향상 등에 힘입어 국산 자동차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칠레: 한-칠레간 FTA 발효 후 국산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 (23.1%)은 2005년 10월 기준 1위인 일본에 근접(24.9%)
- 베네수엘라: 2005년 10월을 기준으로 국산 자동차 판매가 195백만 달러를 기록, 연말까지 220백만 달러의 달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2억 달러 초과 판매기록은 2001년 이후 처음임
- 과테말라: 8월까지 판매된 새 자동차는 23,291대로, 판매 순위는 Toyota 자동차가 5,787대의 판매로 1위를, 2위 기아가 2,096대를, 3위 Chevrolet가 2,009대를, 4위 현대가 1,867대를, 5위 Volkswagen이 1,824대의 차량을 판매
- 파나마: 2005년 1~9월간 현대 및 기아는 각각 1,596대와 1,149대를 판매하면서 작년 전체 판매 대수인 1,474대와 921대를 이미 초과한 상태이며, 상응하여 관련 모델의 부품과 악세서리에 대한 수요도 증가 추세

## □ 중국산 제품에 세이프가드 조치 증가

- 섬유, 신발 및 의류를 중심으로 중국산에 의한 중남미 국가의 주력 산업에 타격이 심각해지자, 중국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이어 발동
  - 콜롬비아: 현지 섬유, 신발 및 의류 협회의 청원에 따라 8월 16일부터 중국산 섬유 및 의류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61~91%의 고관세 부과
  - 브라질: 10월 6일 브라질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발표한 상황으로 주요 피해분야는 전기전자, 광학, 타이어, 섬유 및 신발분야 등으로 예상
  - 아르헨티나: 산업계의 중국산 수입규제 요청으로 플라스틱 인젝션 기계, 완구, 모터사이클, 평삭기, 식료품, 스테인리스 시트 및 케이블 등의 분야에 세이프가드 실시여부 타진 중

## □ 베네수엘라의 급속한 사회주의화 체제로 변모

- Chavez체제는 기업가 및 자본가의 쿠데타 이후 재집권에 성공함과 동시에 반시장주의적, 반미적 정책으로 전환
  - 기존 법률에 구애 받지 않고 행정법을 발효한 후 유효 농장, 유희 기업시설 압류 조치를 실시하고 외국계 기업을 압박
  - 2005년 10월 군사조직법을 개정하면서 주적으로 미국을 상정할 정도로 반미를 뚜렷하게 하고 있으며, 중국, 쿠바, 북

한, 이란과는 정부인사 파견, 경제투자유치, 원유제공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

- 과거 미국, 유럽기업이 베네수엘라의 대형 프로젝트 입찰을 석권하였으나 최근 Chavez 정권의 반 서방정책으로 기술이 낙후되었더라도 외교적 관계가 중시되는 중국, 이란, 쿠바, 북한에서 수주 가능성이 높아짐

#### □ 휴대폰 시장 급속히 성장

- 인프라의 취약으로 충족되지 못한 공급의 개선 등으로 휴대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추세
- 과테말라: 2005년 6월 기준 휴대폰 수는 3백 50만대, 10월까지 휴대폰 시장은 2004년 동기 대비 37.07%의 성장을 기록
- 코스타리카: 60만명의 TDMA 가입자, 40만명의 GSM 가입자 등 총 100만명이 휴대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가용회선 고갈로 신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여 대기수요가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60만 회선의 신규공급이 개시되어 수요자의 욕구를 보다 충족시키는 계기 마련

#### □ 허리케인 스탠 피해 심각

-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국경 근처에 발생했던 허리케인 스탠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멕시코의 경우 원유 및 제조업 관련 시설에는 타격이 없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지는 않으나, 과테말라 지역에는 큰 피해

- 과테말라: 동 사태로 과테말라 국민총생산의 30%를 생산하는 지역이 마비, 최종 피해액은 9억9천6백만 달러로 집계
- 멕시코: 멕시코 최대 관광지인 칸쿤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혀 일일 1천5백만 달러 상당의 피해 추산

## 2.5 중동·아프리카

### □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재정흑자 및 무역수지 흑자

- 지속되는 고유가로 오일머니 유입을 통한 원유생산국들의 재정 흑자 및 무역수지 흑자의 확대 추세
  - 쿠웨이트: 쿠웨이트 중앙은행은 2005·2006회계연도 흑자규모가 전년도 91억 달러 대비 186%가 늘어난 26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
  - 사우디: 2002년까지 지속되던 재정적자는 2003년부터 고유가 지속에 따라 흑자로 전환, 2003년에 96억 달러, 2004년에 261억 달러의 흑자를 시현한데 이어 2005년도에는 500억불을 초과할 전망
  - 이란: NIOC (National Iranian Oil Company) 발표에 의하면 2005·2006 회계년도 이란의 오일달러 수입이 5백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 자원 개발 확대

- 오일머니 유입과 더불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원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 개발 노력이 확대
  - 리비아: UN 및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 이후 1월과 10월 총 2회, 59개의 광구 입찰을 실시했으며, 2회의 성공적인 입찰 결과에 따라 2006년 상반기 중 3차 입찰 실시 예정

- 이집트: 세계 6-10위권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차기 전략 수출 품목으로 부상 중인 액화천연가스의 본격적 수출시작에 따라 산유국 못지않은 경제적 혜택 기대
- 오만: 국영석유공사가 원유 증산을 위해 2010년까지 40억불 신규 투자하기로 결정
- 이라크: 9월말까지 일일 2백만 배럴의 원유 수출을 목표로 약 30억불의 개발 예산 투입
- 쿠웨이트: 북부 5개 유전을 개발 실시 중으로 현재의 일일 생산량 45만배럴을 10년 이내에 90만배럴로 증가시키고자 계획 중으로 총 70억불 소요예정
- 나이지리아: 대한석유공사, 한전, 포스코건설은 컨소시엄을 형성, 나이지리아 정부가 실시한 석유광구 입찰에서 선취특권을 획득하며 2,250MW 독립발전소 건설, 1,200km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2개 광구 낙찰

#### □ 플랜트. 프로젝트 투자 확대

- 고유가로 인한 재정확대로 경제 개발 계획 시행 등과 더불어 대형 플랜트 건설 및 복합 단지 개발을 위한 건설 수주 증대
-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수입 증대에 따른 재정확충 및 산업 발전 추세에 따라 담수공장과 전력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주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발전·담수부문 900억 달러, 석유화학공장 건설에도 1,400억 달러 투자 예정

- 오만: 남부지역 Duqm 복합물류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담수 발전소, 정유공장, 타운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 예상
- 이라크: 전력부문 재건 3개년(2005~2007) 계획에 따라 2007년까지 약 135억불 투자 예정으로 민간 투자 참여 유도 (BOT, BOO 방식 건설)

## □ 인프라 투자 확대

- 열악한 인프라로 성장에 제약을 받던 아프리카 지역에 민자 유치 형태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
  - 나이지리아: BOT 방식과 RMOT 방식으로 민간의 SOC 투자를 허용하면서 파손이 심한 17,000km에 달하는 정부 도로의 개발, 복구, 관리를 장려
  - 남아프리카공화국: 2010년 월드컵을 앞두고 향후 5년간 약 500억 달러를 전력, 도로, 통신시설 확충 등에 투자할 계획으로 이중 약 200억불은 해외 조달이 불가피한 상태로 외국기업의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상
  - 알제리: 5년간(2005~2009) 총 550억 달러를 투입하여 인프라 개발을 시행할 예정으로 고속도로건설, 댐, 철도 건설 등 경제 사회 인프라 개발을 위한 외국기업 진출이 가속화

## □ FTA 움직임

- 무역 자유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꾀하고자 다양한 무역자유화 협정 체결

- SACU-EFTA간의 FTA: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과 유럽무역연합(EFTA)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2006년 7월8일부로 남아공을 비롯한 SACU회원국의 공산품 및 수산물 등은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무관세 및 수량제한 없이 EFTA로 수출됨
- 오만-미국의 FTA: 오만 정부가 2005년 10월 3일 미국과의 FTA협상이 타결되었음을 발표한 이래, 최종 서명은 2006년 1월경에 예정
- 한국-이스라엘 FTA: 이스라엘 정부측의 적극적인 제의로 양국은 FTA 추진을 위한 원칙에 합의
- ARAB FTZ: 정치적 단체인 아랍연맹 가입 22개국들이 2005년 1월1일을 기해 경제적 영역으로 활동범위를 확대, 이는 자율적인 이행사항으로 비교적 느슨한 형태의 경제블럭이나 국가간의 상품과 서비스 이동에 장벽을 제거
- EURO-MED 파트너십 협정: 2002년 6월 17일에 서명되었으며, 레바논은 이를 2002년 12월에, EU는 2003년 1월에 비준했으나 일부국가가 아직 비준을 하지 않은 관계로 2003년 3월을 기준으로 비준국가간에 한해 잠정 발효
- 알제리-EU간 협력협정: 유럽산 원자재 등 일부품목의 관세면제가 시행되고 단계적 관세인하로 오는 2017년까지 완전한 자유무역지대화
- 이집트-이스라엘-미국 3국간 QIZ협정: 2004년 12월 이집트-이스라엘-미국 등 3개국이 부분적인 FTA인 QIZ협정을 체결

결,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향후 15년간 약 25억불의 이집트 산 천연가스를 이스라엘 전력공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

## □ WTO가입 및 민영화 추진

- 중아지역 국가들의 WTO가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응하여 동 국가들은 민영화 조치를 단행
  - 사우디아라비아: 2005년 12월11부터 149번째 WTO의 공식 회원국이 됨에 따라 경제개혁의 가속화 및 시장개방의 확대 지속 기대
  - 알제리: WTO가입을 취지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영기업 50개사의 정부지분매각 계획을 발표
  - 오만: 지난 2000년 10월 WTO가입과 동시에 WTO 주요 권고사항중 하나인 국영산업 민영화 이행의 일환으로 2005년 5월 1일부로 정부 관할 담수·발전산업을 민영화 조치

## □ 수입금지 증가

- 다양한 정치적 및 외교적 이유로 수입금지가 실시 혹은 강화됨으로써 우리의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
  - 이란: 상무성은 10월17일부터 한국산 수입 Proforma Invoice에 대한 승인을 공식적인 이유 없이 중단한 후 11월 5일부로 수입승인을 재개하였으나 자동차부품 등 자국 산업에 필요한 원부자재류에만 국한하여, 수입금지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

- 나이지리아: 2005년 4월6일자로 수입금지 품목을 종전 18개 품목군에서 43개품목군으로 확대, 수입금지 품목에는 의식주 관련품목 및 생필품이 많이 포함, 자전거부품 등 13개 품목이 새로 추가되는 한편, 비누세제 원료 등 일부 품목은 금수조치 해제
- 남아공: 남아공 정부는 중국 등 저가산 섬유수출국들로부터 자국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남아공 내 판매되는 모든 섬유 제품에 대해 훨씬 강화된 라벨링 규정 적용할 방침 공표

## □ 수입규제 완화

- 반면 자국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무역규제의 완화 움직임도 가시화
  - 남아공: 남아공 정부는 자국의 주력산업(1차산업 및 원료제조부문) 보호를 위해 수십년간 유지해온 수입평형가격제도(IPP)<sup>4)</sup>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
  - 리비아: 호화 사치품 수입 자제 및 자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81개 품목에 대해서 부과하던 소비세(25%) 및 생산세(2%)를 8월 1일부로 담배를 제외한 전 품목 폐지
  - 케냐: 7월 1일부로 수입품의 선적적 사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를 폐지하고, 대신 ISO 12075를 취득한 검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수출적합자격증(Certificate of Conformity)을 제시토록 수출입법을 개정

4) IPP(Import Parity Pricing)란 Upstream산업(예;철강회사)의 기업이 국내의 Downstream산업(자동차조립회사)의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제품가격을 동종 제품의 국제가격에 관세, 운임, 보험료 및 내륙운송비 등을 더해 책정할 수 있도록 용인한 관행

## □ 중고차, 중고중장비차량 수입 제한

- 환경 및 미관상의 문제 등으로 중고차, 중고중기계의 수입을 제한하는 국가가 증가, 우리 중고차/중기계 수출에 타격
  - 이라크·요르단: 중고차 수입 금지조치로 이라크 재건에 기인한 우리의 대이라크 중고차 수출 및 우외수출 기지인 대요르단 수출이 급감
  - 알제리: 9월 26일부로 중고차 수입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연간 10만여대의 교체수요 발생
  - 쿠웨이트: 생산된 지 10년 이상 된 중고 중장비차량을 2월 20일자로 소급하여 수입 금지 조치하고, 이와 함께 15년 이상된 차량의 운행 금지를 고려 중

## □ 한국자동차 인기

- 중고차 수입 제한 조치 등과 맞물려 우리나라의 신규 승용차 수출 증가
  - 이집트: 국산 승용차가 이집트 시장을 석권하는 추세로 2005년 10월말 현재 약 1억5천만 달러의 자동차를 수출, 한편 상반기 중 판매된 신차의 약 40%가 국산 자동차
  - 알제리: 2005년 중고자동차 금수조치로 2006년부터 수년간 매년 20~25만대의 신규자동차 수요 발생이 예상되며 프랑스, 일본, 국산 자동차의 각축장으로 동 조치는 우리 자동차 업체에 호재로 작용

## 2.6 러시아·CIS

### □ 러, 상류층 시장 급부상

○ 일명 노브이 루스끼(New Russian)의 구매성향이 빠른 속도로 고급화되고 있음

- FENDI, VALENTINO, Gianni Versace 등 고급 브랜드 매장이 급증하고 있으며, 상류층을 대상으로 고급잡지도 등장

### □ 러, 특별경제구역(SEZ) 선정

○ IT, 생명공학, 신소재, 나노-기술 분야 등 기술집약적 산업 발전 및 외투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별경제구역(SEZ) 조성 사업이 11월29일 1차로 톱수크주를 포함 6지역을 선정하는 등 가시화

- SEZ 입주기업에게는 법인세 26%를 14% 수준으로 하향적용하고, 향후 5년간 임대료와 토지세를 면제할 계획

- 그러나 SEZ는 기본적으로 무관세 지역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현지 투자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

### □ WTO 가입 추진

○ 국제무역질서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적 경제통합추세에 발맞추기 위하여 WTO 가입추진 박차

- 러시아: 2005년 EU와의 협상타결, 미국 등 일부 국가와의 양자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며 현재 주요 이슈인 항공, 육류, 금융시장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2006년에는 WTO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우크라이나: 3월과 6월 등 2회에 걸쳐 핸드폰, TV 세탁기, 냉장고 등 한국 주종수출품목을 포함한 다수 품목의 수입 관세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WTO 가입요건 충족을 시도

#### □ 세금인하 및 세제개편

- 경제구조개혁 및 경제 활성화의 방편으로 세금인하 및 세제개편 시행
  - 러시아: 올해 경제성장이 최근 2-3년과 비교해 최저치를 보이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하여 부가세 하향조정(18→13%) 논의
  - 우즈베키스탄: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단일세, 예산외연금, 도로 기금 및 학교 기금 등 각종 세금을 단일세(13%의 단일세율)로 통일 조치

#### □ 외국인 투자 증가 및 촉진법 발효

- 내수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러시아·CIS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지역의 외국인 투자 촉진 조치도 병행 중

- 러시아: 시장점유를 위해 도요타가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캄리 생산공장을 착공하는 등 세계 우수기업들의 대리 투자가 활발히 진행
-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특정조건 하에 외국 투자자의 소득세, 재산세, 사회간접자본개발 및 토지개발세 등의 면제를 내포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인 투자자 보호조치 단행

#### □ 자원개발 분야, 외국인 참여 제한 및 촉진 병행

- 자원개발을 촉진하는 가운데 외국인 참여의 제한 및 촉진 조치를 병행 실시
  - 러시아: 국내 자본에 의한 자원개발을 본격화 하면서 2005년 개정된 법률안에 의거하여 동 분야에 외국인 관리자 채용 금지 조치 실시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자원 개발에 각국이 눈독을 들이는 가운데 중국국영석유공사가 6억불 규모의 합작투자협정을 포함, 세관, 첨단 기술 및 에너지 분야 등에 걸쳐 14개에 달하는 협력 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러시아의 천연가스 거대 기업인 Gazprom사도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자원 개발에 적극 참여를 시도

#### □ 자동차 수입관세 인상

- 러시아·CIS 지역 전반에 걸쳐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고 있음

- 러시아: 하원에서 우측핸들 차량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을 검토 중으로, 시행시 시베리아 지역에서 수입차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일본산 중고자동차의 피해 예상
- 우크라이나: 자동차 수입관세를 기존 15%에서 2005년 3월 1일부로 20% 인상한데 이어 8월 16일부로 25% 추가 인상

## □ 국산 자동차 인기

- 국산 자동차 수요 증가와 지속적 시장점유 확대를 위한 우리 업체의 현지 진출 가속화
  - 러시아: 2004년에 이어 국산차가 러시아 자동차 수입시장에서 정상을 확보, 특히 현대자동차는 2위인 도요타와 현격한 판매대수 차이를 보이며 시장점유 1위(15.7%)를 차지
  - 우크라이나: Bogdan사는 2005년 11월부터 기아자동차의 조립생산을 시작, 완성차 수입관세의 인상으로 저관세 부품수입을 통해 관세부담을 낮추려는 전략

## □ 휴대폰 및 이동통신 가입자 수 급증

- 휴대폰 이용자 및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휴대폰의 불법통관을 대대적으로 단속 중
  - 러시아: 불법 통관의 사회적 이슈 대두에 따른 세관당국의 핸드폰 관계법령 강화 및 각 브랜드·모델 별 세분화된 관세 적용으로 휴대폰 가격이 15~20% 상승

- 우즈베키스탄: 휴대폰 가입자 수는 사용 요금 인하 등에 기 인하여 2005년 초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운 급성장세를 하며 최근 1백만명을 돌파
- 우크라이나: 최근 2-3년간 우크라이나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매년 배증되어 2005년 10월 1일 시점까지 우크라이나 인구의 약 절반에 달하는 2,318만명이 휴대폰을 사용

#### □ 우크라이나 소매시장 성장률 세계 3위

- 우크라이나는 4-5년 전만해도 소매성장지수가 낮은 국가에 속했으나 최근 소매시장의 대폭 성장으로 2004년에 11위를 기록한데 이어 2005년에는 3위로 상승
- 지난 8월초 A.T.Kearney는 우크라이나의 소매시장 성장률 이 러시아와 인도에 이어 세계 3위라고 발표
- 최근 서유럽 소매시장의 침체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유럽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 을 서두르는 중

### III. 시사점

#### 3.1 공동현안

##### □ FTA

2005년 해외시장환경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역 자유화를 위한 WTO 다자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일부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전 지역에 걸쳐 다대·다양하게 추진되어, 우리수출 및 투자의 기회이자 장애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특정 FTA내에서 공동 역외관세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의 국가마다 천차만별인 관세가 일정 비율만큼 통일성을 갖게 되고, 더욱이 비관세 무역조치도 분야에 따라 일률화 된다면 투명성의 제고로 거래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내에서는 관세인하 및 철폐가 추진되는 반면 역외로는 국가마다 기존의 관세제도가 유지된다면 역외국가의 동지역으로의 수출은 가격경쟁력의 저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점은 관련 형식과 내용이 다양한 FTA가 우후죽순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경쟁국가의 동향을 따라 FTA를 다수로 시도하는 것은 본 협정의 체결을 통한 득과 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여 실익보다는 협상의 연장에서 오는 경제적, 시간적 낭비와, 상응하여 다른 대안을 점검할 기회를 상실하게 할 수 있다.

FTA의 능동적 참여는 우리기업의 해외 수출 및 투자 비즈니스를 위하여 반드시 시도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협상 및 협정내용이 본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업계,

학술계, 그 밖의 전문인들이 협력하여 충분한 사전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 □ 수출시장 및 수출품목의 다변화

우리수출은 여전히 주요시장 및 중점수출품목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해외 투자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치우친 수출·투자 양상은 관련 시장의 지나친 의존을 야기하여, 시장의 변동사항이 우리기업에게 유리하지 않게 작용할 경우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2005년에도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전기·전자, IT, 컴퓨터 및 가전제품의 해외 진출은 주목할 만했다. 더욱이 동구권, 동남아, 중아지역 등에서는 동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초된 수요 증가와 맞물려 우리의 관련 수출은 2006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추세이다. 그러나 수요의 측면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북미시장에서 우리 수출의 감소 경향이 보여주듯이 품질의 개선만으로는 시장점유를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더 나아가 불필요한 통상압력의 근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아직 충분히 진출하지는 않았으나 거대한 잠재적 내수시장을 가진 많은 국가들이 있다. 이는 동구권의 국가들일 수도 있고 동서남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및 러시아 극동, CIS국가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다수 국가는 성장 및 내수 잠재력이 있다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시장구조, 소비자 기호, 규제, 문화·사회적 제반여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시장의 진출 및 시장점유를 위해서는 시장의 특성 및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Country Marketing 전략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총체적으로 중장기적 건설한 수출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 및 중점 수출품목을 제품 다양화, 마케팅 다원화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한편,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 성장시장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이원화”된 전략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 □ 국제수준의 규범체제

환경을 고려한 지속성(sustainability), 보건위생의 준수,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보호 등이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에 국제적 추세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사안의 준수가 선진국 시장 뿐 아니라 점차적으로 개도국 시장 진출에도 중요 관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상품·서비스의 제조 및 수출경로에 동 사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화 되고 있다.

친환경, 공중위생, 지적재산권 보호는 GATT의 일반적 예외 조항 (Article XX), TBT, SPS, SCM, TRIPS 등의 규정을 통하여 WTO 국제무역질서 혹은 ISO 등의 기타 국제기구에 부분적으로는 고려되어 있으나, 다양한 분야 및 경우를 망라한 국제적 규범(international standard)체제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상황으로 국가마다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진출 시장의 관련규제 및 변동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는 뜻하지 않은 무역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 수요자의 친환경 및 공중위생에 대한 관심증가와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분야에 따라서는 국내 제품도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유망 수출 분야로 신규시장 개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점차 세계적인 선진기술을 창안하고 있으므로 국제시장에서 우리의 지적 재산을 보호받고 상응하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에서의 관련제도를 숙지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국제추세에 발맞추고, 더 나아가 선두하기 위해서는 각 수출시장의 친환경, 공중위생,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규제준수 및 보호권리 획득을 위해 요구되는 제반 사항을 우리사업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무역·투자 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의 환경 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과 분야를 모색하고 적절한 진출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다.

#### □ 에너지 개발 협력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대국의 급격한 수요증가와 화석 에너지 및 기타 천연자원의 점차적인 고갈 및 대체 한계로 수급의 불균형이 가속화 되고 있다. 동시에 경제성장에 따른 동남아, 중남미, 중아, 러시아·CIS 국가들의 차세대 에너지 및 자원개발의 의지가 개발 프로젝트 시행 및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개발 인프라에 적극 참여하고, 더 나아가 공급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의 협력방안과 국가별 입찰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시장성 및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 3.2 지역현안

### □ 북미지역

미국경제의 회복세 및 캐나다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달러의 약세 및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등 우리 주력 상품 수출의 감소로 우리의 대북미 수출은 총체적으로 작년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미국의 무역수지 및 재정적자의 심화는 중국에 이어 우리에게 대한 무역통상압력의 요인이 될 수 있겠다.

한편 개별 시장에 있어서는 중국산 석유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과, 특히 델파이 파산이후 증가한 자동차 업계의 해외 아웃소싱이 우리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총체적으로 2006년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환율의 변동을 주시하면서 승용차, IT시장 등의 뉴트랜드를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우리제품의 조달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신규 및 틈새시장의 보다 적극적인 개척으로 수출 경로의 다변화가 시급하다.

### □ 구주지역

구주지역의 전반적인 경기회복, 유로화의 지속적 강세, 국산 승용차, IT, 핸드폰, 전기·전자, 가전제품 및 컴퓨터 관련 품목의 두자리대 수요 증가 및 동구권 신규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다대하여 2006년 우리의 대유럽 수출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호기를 맞고 있다.

또한 교토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한 EU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조치, EU 배출권제를 통한 탄소시장 등장과 EU기금 및 동구권 성장에 기인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 수요증가로 친환경 시장이 다방면에 걸쳐 성장하고 있다.

그 밖에 대 중국 섬유 쿼터제 재도입, EFTA와의 FTA 체결 등도 우리 수출의 호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가전제품, 화학 및 의약품과 관련하여 환경·위생 규제가 강화되어 주의가 요망된다.

구주지역은 총체적으로 국부의 수준, 소비자보호 및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진출전략 수립과 친환경 상품의 강화 및 EU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상품 조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 아시아·대양주지역

아시아·대양주 지역에서는 다방면에 걸쳐 FTA협상과 체결이 2005년 큰 현안이슈였다. 특히 EU, 북미의 NAFTA에 이어 세 번째 큰 역내 내수시장을 가지는 중국-ASEAN의 FTA 발효는 중장기적으로 중국 및 ASEAN시장에서 우리와 주요 아시아 경합국 간의 차별화된 관세 적용을 야기하여 우리기업의 수출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엔화 급락, 몇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리 일부 농산물, 공산품 및 섬유업에 대한 금수조치와 반덤핑 규제, 차이나 리스크 및 일본의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조치도 우리의 해외 비즈니스를 위하여 경계해야 할 요소이다.

반면 우리 상품의 이미지 제고, 한류열풍, 에너지 개발 및 인프라 구축 확대, 국산 휴대폰과 IT제품의 수요 증가는 우리 상품 수출의 유리한 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2006년 아시아·대양주 지역의 수출여건은 무엇보다도 환율 급변, FTA에 따른 관세율 차별 적용, 조류독감 확산 등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웃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및 수입규제 해제를 위한 협상 진전도 우리가 매진해야 할 또 다른 과제이다.

## □ 중남미지역

아시아·대양주지역과 유사하게 중남미 지역에서도 FTA가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특히 중남미 국가간의 FTA는 우리와 수출구조의 상이성으로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시아지역의 경제 불려화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남미지역에서는 정치적 불안, 좌파정부의 반서방적 움직임이 동지역의 경제성장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전반적인 구매력 상승과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수출가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산 자동차, 휴대폰 등의 제품, 플랜트 사업과 건설 중장비 진출에 호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중남미 진출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개선, 중남미 소비자(특히 중·상류층)의 구매력 향상, 국산품의 인기추세를 이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진출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한편 정치적 불안, 허리케인 등의 자연재해 등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도 중요한 사안이며, 중남미 FTA 추세를 활용한 중남미 투자를 통한 미국, 일본으로의 우회수출 및 물류거점 확보도 주시해야 하겠다.

## □ 중동·아프리카지역

2006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제정확대로 에너지 개발 사업, 인프라 구축 확대, 대형 플랜트 건설 등의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활기를 띠리라는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내전의 점차적인 종식, 남아공의 2010년 월드컵 준비 본격화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여전히 리스크가 가장 큰 시장 중의 하나이다. 중동지역의 과격단체에 의한 테러 위협이 지속되고 있고 근거가 불분명한 수입금지 등의 위협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의 외상수출 미수금 등이 보여주듯이 동 지역은 국제적 무역상거래 관행이 일상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제정확대와 경제성장에 기인한 중동지역의 각종사업에 동참하고 소비수요의 증가에 발맞춘 고가품 수출 확대에 역량을 기울이면서 점차적으로 Post BRICs로 평가받고 있는 아프리카 시장 진출도 점차 확대해야 하겠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투자 조건의 상시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방안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 □ 러시아·CIS지역

내정의 안정, 경제성장, 세제개편, 상류층의 급부상 등에 기인한 소비시장 성장, WTO가입을 위한 관세인하, 특별경제구역(SEZ) 선정 및 양성을 통한 외국인 투자조건 개선 등으로 2006년 러시아·CIS 수출·투자환경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 수출의 러시아 대도시권 위주,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 그 밖의 극동 러시아로의 공식 세관절차에서 벗어난 비 공식 수출 등은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

한편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 산업 국유화 및 자원개발에 있어 외국인 참여 제한 조치 등은 동 분야 진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06년 러시아·CIS 시장진출 전략은 모스크바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 공략을 강화하는 가운데,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우리의 농수산물 및 식료품 수출에 유리한 극동 러시아 및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잠재적 소비시장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소홀했던 CIS 지역으로의 진출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 약어 색인

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아태무역협정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
DR-CAFTA	Central America - Dominican Republic Free Trade Agreement 도미니칸-중미 자유무역협정
CAFTA	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중미 자유무역협정
CARICOM	The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카리브해 공동시장
CEP	Closer Economic Partnership 자유무역협정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어젠다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EURO-MED	The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Agreement 유럽연합-지중해 파트너십 협정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FTZ	Free Trade Zone 자유무역지대
GATT	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 유럽 신화학물질정책
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부아프리카 관세동맹
SAFTA	South Asia Free Trade Agreement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
SCM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SEZ	Special Economic Zone 특별경제구역
SPM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협정)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
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 작 성 자

◆ 아시아대양주지역	최동석관장외 13명
◆ 구주지역	차종대관장외 19명
◆ CIS 지역	강상엽관장외 4명
◆ 중국지역	박한진차장외 2명
◆ 일본지역	신태철차장
◆ 북미지역	임채근차장외 1명
◆ 중남미지역	전춘우관장외 11명
◆ 중동아프리카지역	이종건관장외 13명
◆ 해외조사팀	신순재과장
◆ 해외조사팀	이해인대리